

# 자율관리어업

##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 2018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올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교육사업 강화하는 한편, △공동체 컨설팅 및 평가 지원 △해외 우수사례답사 △자율관리어업 분쟁조정 △전국대회 개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동체 현장 방문교육

공동체 현장방문 교육은 크게 지역담당 컨설턴트를 활용한 현장교육과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교육, 성공사례 현장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지역담당 컨설턴트 교육은 활동부진 공동체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지난해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300점 미만 공동체는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300~500점 공동체는 지자체별 컨설팅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컨설팅 대상 공동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교육은 금년도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평가제도 및 관련 규정 개선내용 등을 교육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별 수산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집체교육 및 어촌지도자 회의 일정을 사전 조사하여 지자체별 교육일정에 맞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공사례 현장교육은 신규공동체 또는 활동 부진 공동체를 대상으로 성공한 공동체를 방문, 현장에서 성공사례 등을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이다. 자율관리어업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 교육은 시도별 1~2개소씩 총 20여회 추진될 예정이다.

**공동체 평가업무, 전국대회 개최 지원**  
공동체 평가업무는 공동체 등급 및



올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공동체에 대한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등급별 순위 결정, 우수공동체 선정 및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 등 평가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를 지원하는 업무이다. 공정한 공동체 평가를 위해 6~7월경 공동체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평가담당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10~11월경 워크숍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운영 실태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에 맞는 사업 추진 여부 및 지자체의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여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격년으로 열리는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금년에는 11월경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국대회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수부와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자율조정협의회, 해외 우수사례 답사

자율조정협의회는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업종간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도록 민간차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수산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자율조정

### 제7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3월 3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이 오는 3월 3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 소재)에서 개최된다. 수산인의 날은 수산인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을 위해 마련된 국가기념일로, 올해 행사에는 전국 수산인과 수산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3월과 12월 연 2회 총괄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전 발굴 및 분쟁조정 결과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총괄협의회에서 분쟁과제가 선정되면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별 분과협의회를 통해 분쟁해소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해외 우수사례 답사는 올해의 경우 3회(신규공동체 1회, 우수공동체 2회)에 걸쳐 일본, 뉴질랜드, 중국의 선진 수산현장을 방문한다. 연수인원은 1회당 공동체 참여 어업인 12명 내외이며, 연수대상자는 지자체에서 추천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수부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3월 임의이사회 개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오는 3월 5~6일 오송연합회 사무실에서 2018년 3월 임의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금년도 전국대회 개최문제를 비롯, 부진공동체 퇴출방안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전북도 어업기술센터,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2월 6일 전북어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확산교육 모습.

전북도 어업기술센터(센터장 주동수)는 2월 6일 센터 회의실에서 전북 부안군 관내 30여명의 공동체 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수산업협회 양문주 부장 등이 강사로 나서 금년도 자율관리어업 사업추진 방향을 비롯,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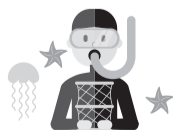
## 자율관리어업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 어장관리 활동



어장정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담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 자원조성 활동



체포제장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능력 식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활동부진 공동체 퇴출, 공동체 질적 성장에 주력키로’

해양수산부는 2월 19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을 비롯, 지자체 자율관리어업 담당자 및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활동부진 공동체 관리방안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제도개선이 중점 논의됐다.

활동부진 공동체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2년간 평가점수가 500점 미만인 공동체 중 개선 의지가 없는 공동체를 사전 조사하여 퇴출대상 공동체를 선정하고, 10일간 서면 소명기회를 거쳐 최종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2년간 평가점수가 300점 미만인 공동체 중 퇴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체는 맞춤형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활동실적 보고대상으로 별도 관리하는 ‘퇴출 유예제’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퇴출 유예공동체 중 컨설턴트를 통한 교육을 거부하거나 활동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월 19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관계자 회의를 갖고 활동부진 공동체 관리방안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일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퇴출 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방침이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제도개선 방안은 공동체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신규공동체의 등록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등록 이후 2년 연속 활동실적이 부진할 경우 공동체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소득 향상에 주안점을 둔 공동체 육성방향을 자원과 어장보호에 역점을 두는 공동체로 육성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어기 등 자원관리 기간에 폐어구 수거, 해적생물 구제 등의 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자원관리형 우수공동체를 시범 선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동체 평가항목도 수산자원관리 중심으로 축소해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가

3년 연속 평가점수 700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사업비를 전액 또는 일부 회수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가 단순한 체험관광형 사업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펜션, 낚시터 좌대 운영사업 등은 안전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현재의 컨설턴트 인력 수준으로는 전국의 활동부진 공동체에 대한 효과적인 컨설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컨설턴트 인력 증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공동체의 활동부진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어업인력 고령화에 따른 활동일지 작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하여 ‘사무장(도우미) 제도’ 도입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제1회 충남근해안강망어업인 한마음 대잔치



제1회 충남근해안강망어업인 한마음 대잔치 모습.

(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회장 박상우)는 1월 26일 충남 보령시 머드린호텔에서 제1회 근해안강망

어업인 한마음 대잔치를 개최했다.

근해안강망 어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수산자원보호 인식 전환을 통해 자율적인 어업환경 조성과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준법조업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수산보호에 기여한 어업인에 대한 표창수여와 어업인 노래자랑 등 안강망어업인 화합을 통한 친목도모의 시간도 가졌다.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는 지난 2002년 결성됐다.

고성군 봉포 자율관리공동체 성금 기탁



강원도 고성군 봉포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배오복)는 1월 25일 고성군청을 방문, 윤승근 군수에게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2009년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봉포공동체는 해삼양식에 주력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수협, 수산자원 방류 등에 22억원 투입

수협중앙회는 연근해 어획량 회복을 목표로 올해 22억5,000만원을 투입해 ‘2018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협은 수산자원 조성·회복관리를 위해 수산종자방류(15억원), 폐어구

폐어망 수거(3억원), 유해생물퇴치(1억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어장·해안가 쓰레기 대청소, 바다환경감시단 활동 등 바다환경 유지·개선 관리에도 3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과태료 부과  
해수부, 어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안전수칙을 위반한 어선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다. 해수부는 1월 29일 무선설비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선박에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어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났거나

분실했을 때 신고한 후 수리하거나 다시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어선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제재수단을 강화한 ‘어선법’ 시행(5월 1일)을 앞둔 조치로, 입법예고 기한은 3월 10일까지 40일간이다.

충남도 내수면어로어업연합회장 취임



장영수 아산호내수면어업계장의 충남도 내수면어로어업연합회장 취임식 모습.

충남도 내수면어로어업연합회장에 장영수(61) 아산호내수면어업계장이 취임했다. 1월 30일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이재완 전국내수면어로어업연합회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내수면어업계장,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기고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위해 젊은 인력 어촌 유인책 절실

18년을 이어온 자율관리어업은 각 지역 대부분 공동체가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수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그동안 일선 공동체에서는 어장환경 개선, 수산자원 관리, 생산량 조절 등에 주력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점은 젊은 어업인의 참여가 부족하여 어촌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는 첫째 경제적인 이유, 즉 연안 어업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 어업을 하고 싶어도 어업권(연안 어업권) 취득이 한정되어 기 허가된 허가권의 가격이 젊은 사람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귀어귀촌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 대다수가 하는 이야기이다.

### 어촌발전 위해 실질적 규제 혁파 필요

이를 두고 기존 어촌위원의 텃세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쉽게

수협 조합원이 되고 어촌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기존 어촌계의 어업권을 행사하거나, 어촌관광사업을 일정기간만 조합원이 되고 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다양한 유인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6차 산업이라는 이름의 어촌 발전전략도 희망이 있을 것이다. 수산물 생산과 가공 그리고 어촌체험의 서비스 산업이 어우러지면 자율관리어업이 시너지효과를 이뤄 어업인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젊은이들의 어촌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립 서비스 뿐인 규제 혁파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말로는 4차산업, 6차산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 법규나 인허가 등이



**강원보**  
울산 주전공동체 위원장  
(자율관리연합회 수석부회장)

1차, 2차 산업에 맞추어져 있어 실제 어촌체험을 하려고 해도 앞에 언급된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법적 요건이나 규제 등을 지자체의 사정에 맞추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해양 레저 및 해양 체험관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해 우리 어촌에 폭넓게 수용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 위원장 열정이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

이런 3차 산업과 기존 자율관리어업의 1차, 2차 산업이 어우러진다면 어촌 경제의 부가가치가 높아져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이 어촌으로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어업인들의 의식 변화가 중

요한데 지금까지의 어업인 교육은 대부분 어장관리, 자원조성, 생산관리 등에 집중되면서 마케팅, 서비스 등 3차 산업 관련 교육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비교적 배타적인 어업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어촌을 살리고 어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식 전환을 통하여 잘사는 어촌을 만든 공동체가 우리 곁에도 더러 있다. 이런 공동체의 공통점은 위원장 및 구성원의 의지와 단결 그리고 관련 단체 및 지자체 공무원의 열정과 관심이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살기 좋은 어촌, 풍요로운 어촌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다.

어업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전국의 공동체 위원장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이 우리 자율관리어업 발전의 원동력임을 확신한다.

## 올해 바다목장 5개소, 바다숲 3,108ha 추가 조성 해수부,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계획 발표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올해 5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다목장 5개소와 바다숲 3,108ha를 조성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남획으로 황폐해지는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매년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동서남해 및 제주 해역에 총 20개소, 3,108ha 규모의 바다숲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추진된 바다숲 조성사업은 갯녹음 현상으로 사막화되어 가는 바닷속에 해조류·해초류를 직접 심거나, 바다숲을 보호·보전하여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다시마감태잡피 등을 활용해 바다숲의 자생력과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어업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바다숲은 동해 9개소, 서해 1개소, 제주 6개소, 남해 4개소 등 20개소에 조성되며, 남해지역엔 경남 통영시 사이도, 능양, 우도, 전남 여수시 동도리 등 4곳이 지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 바다목장 5개소도 신규 착공한다. 바다목장별로 인공어초를 활용해 어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춘 주요 수산자원 방류 및 모니터링 등을 5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바다에 인공적으로 물고기가 모여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돼 지난해까지 총 30개소를 조성했다.

신규 착공하는 5개소는 고창 구시포·동호(주꾸미), 포항 남구(문어), 완도 군외면(꼬막, 바지락), 서귀포 가파도(오분자기), 안산 풍도(어류, 민꽃게)다.

해수부는 또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생태계 유지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넙치에 대한 방류종자인증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방류종자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10종(대하 추가)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동해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영덕, 울진 등에 어초를 설치해 어린 대게의 보육장을 마련하고 보령(주꾸미), 기장군(말쥐치), 동해시(대문어) 등 회복이 필요한 수산자원의 산란장·서식장 조성에도 나선다.

## 오징어 자원회복방안 마련한다 회복대상종 추가금지기간 확대 등 검토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획량이 급감한 오징어 자원회복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울릉도의 오징어 건조 모습.

어획량 급감으로 가격이 치솟아 '금(金)징어'라 불리는 오징어 자원 회복방안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살오징어와 주꾸미를 회복 대상종에 추가해 과학적인 자원 조사를 통해 자원회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2006년부터 자원 회복관리가 필요한 어종을 회복 대상종으로 선정, 생태어획량 조사 등 연구를 추진하는 수산자원회복사업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도루묵 등 16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살오징어 등 2종을 추가해 총 18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살오징어는 기후변화과도한 어획·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획량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최근 2년간 어획량이 급감하는 추세를 보여 회복대상종으로 선정됐다.

또 주꾸미는 산란기인 봄철에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명 '알배기 주꾸미'의 어획량이 늘어나는 한편, 최근 해양레저 인구 증가와 맞물려 초심자도 접근하기 쉬운 주꾸미 낚시가 인기를 끌면서 자원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살오징어와 주꾸미를 포함한 총 18종을 올해 수산자원 회복대상종으로 선정 관리하고, 추후 자원회복 목표량을 달성했거나 연안종으로서 지자체의 관리가 필요한 어종은 관리종(5종)으로 구분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어획량이 급감한 살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한 △미성어 포획 감소 방안 △포획금지체장(외투장 기준 12cm) 상향 조정 △금지기간 확대 등을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를 집중 추진한다.

### 평창올림픽 현장에 'K-FISH 홍보관' 운영 해수부·한국수산업회, 수산식품 우수성 홍보



평창올림픽 현장에 K-FISH 홍보관이 설치돼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은 홍보관 내부 모습.

해양수산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에 2월 6일 한국 수산식품 홍보관을 개관해 외국인들에게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홍보관은 올림픽이 끝나는 2월 25일까지 운영되며, 패럴림픽 기간(3월 8일~3월 18일)에도 개장한다. 홍보관은 한국수산업회가 주관해 운영한다. 올림픽페스티벌파크 내 'K·FOOD 플라자'에 약 180㎡(약 55평) 규모로 설치된 홍보관은 동·서·남·북에 대한 소개코너를 시작으로 △청정 바다 이야기 △안전하고 신선한 K-FISH △건강하고 맛있는 K-FISH △세계가 즐기는 K-FISH 등 4개 주제관으로 구성돼 있다.

### 해수부, 수산분야 정책 현장 설명회 개최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해양수산부는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어업인·수협·지자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8년 수산정책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신현석 수산정책실장 등 수산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들이 직접 참석해 올해 수산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 또 정책 수요자의 애

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산경영인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업 종사자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바닷모래채취 결사반대!! 수산계·시민단체 공동성명 발표



2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수산계와 인천지역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바닷모래 채취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수산업총연합회를 비롯한 수산계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채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선갑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절차 중단과 해역이용협의 강화를 요구했다.

현재 골재채취업자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선갑도 인근 해역에서 남산규모(5,000만㎡)의 바닷모래채취를 위해 해역이용협의서를 인천지방해수청에 제출한 상태다.

### 어선 3톤 이상,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으로 확대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월 30일부터 어선원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현행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 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해수부는 근거리 조업을 주로 하는 영세 어업인들의 어선원 보험 가입이 저조함에 따라 이 보험법 시행

령을 개정해 어선원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00여명의 어선원이 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자로 추가되어 총 4만 4,000여명의 어선원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이나 질병·사망 등 재해를 당했을 때 유족급여와 요양급여·상병급여 등 산재보험과 동일한 재해 보장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공동체 탐방 / 에당 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

### '중간육성장 통해 자원조성에 박차 ... 내수면 자율관리어업 선도적 역할'



최재인 에당 내수면 공동체 위원장

“지금 내수면어업은 그 어느 때보다 어족자원의 보호·관리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단일 저수지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에당저수지를 어업기반으로 내수면에 자율관리어업의 바람을 확산시킨 에당공동체의 최재인(53) 위원장은 “한정된 수면에서 제한적인 어업을 해야 하는 내수면어업의 특성상 자원조성, 무분별한 남획금지, 유해어류 퇴치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자율관리어업 초창기에 사무국장을 맡아 공동체 결성을 주도하며, 에당저수지를 지속가능한 어업의 터전으로 삼고자 45명의 회원들과 힘을 모아 저수지의 환경정화와 자원관리에 매진해



단일저수지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에당저수지. 이 저수지를 어업기반으로 에당공동체는 자원조성 활동에 힘을 쏟아 내수면 최고의 공동체로 성장했다.

왔다. 특히 농번기 수위의 급격한 하락으로 산란된 어류의 알이 고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란용 인공어소(魚巢)를 제작 설치해 자연 산란율을 높이는 한편 자체자금 3,000여만원을 들여 에당저수지 상류지역에 2개소(80조)의 어류 인공산란장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낚시객 및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저수지 주변 쓰레기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유해어종인 배스 구제에 전 회원이 힘을 모았다. 또한 봄철 산란기와 저수지 수위가 40% 이하로 떨어지는 여름철 갈수기에 금어기를 실시해 갈수록 줄어드는 어족자원 보호관리에 매진했다.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에당공동체는 2006년부터 3회에 걸쳐 모범공동체로 선정되고 2016년 마침내 선진



자체자금을 들여 에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설치한 내수면 어류 인공산란장.

공동체에 진입하여 공동체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저수지에 2013년부터 유해어종인 배스와 블루길이가 유입되면서 붕어, 메기, 동자개 등 토종어종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내수면어류 중간육성장 건립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육성장사업비 등으로 붕어종묘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왔으나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종묘생산과 함께 치어를 일정 크기(10~15cm)로 키워 방류하는 종묘 중간육성장건립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이에 따라 에당공동체는 지난해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를 신청, 5억여원의 예산으로 올해 8m 원형수조 8개 구



농번기 수위의 급격한 하락으로 산란된 어류의 알이 고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란용 인공어소(魚巢)를 제작 설치하여 자연 산란율을 증대시키고 있다.

모의 중간육성장을 조성해 연간 5톤 이상의 붕어 등 토종어류를 방류할 계획이다. 국립수산물과학원의 방류효과 분석에 따르면 중간육성장을 활용하여 방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비 대비 2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당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선진지 견학장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지금도 전국의 내수면공동체에서 많이 찾는 성공사례 전수교육 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에당 생태자원순환센터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내수면 자율관리어업 발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내수면어업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